

남원의료원,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원의료원은 27일,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한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신경과 이학승 교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성기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인 전북 동부권 지역의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남원의료원 의료진 및 종사자들이 최신 뇌졸중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센터로, 전북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전문 치료 체계 구축, 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오진규 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부권 도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진규 원장



남원시 등,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 협약

남원시는 27일, 전북광역지하철센터와 2026년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센터에서 공모한 사업에 남원시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 대상 무상으로 집수리, 청소, 소독·방역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남원시는 읍·면·동 수교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인 광역지하철기업의 현장 실시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 후 본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집수리, 청소, 방역, 정리수납 등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노후화된 주거공간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보석성광교회, 가정의 달 한방·이미용 봉사

군산시 임피면 보석성광교회(담임목사 김동원)는 지난 27일,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한 한방치료 및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봉사는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회 성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방진료를 통한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비롯해 발마사지, 컷트 및 간단한 이미용 서비스 등이 제공돼 어르신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봉사자들은 정성 어린 섬김으로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동원 담임목사는 "작은 섬김이지만 지역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규자 임피면장은 "의료 및 이미용 서비스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도움"이라며 "봉사를 실천해주시는 교회와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따뜻한 선물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보석성광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 교육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7일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 및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여름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교육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생활체육 통한 소통·공감 문화 확산

장수군장애인체육회, '2026 어울림 슬런 대회' 성료

장수군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7일 '2026 장애인활성화 프로그램 어울림 슬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수군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했으며 협약기관인 장수군장애인보호작업장과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 장수군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장수군 종목별협회 회원과 이용자, 보호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슬런은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로 '셔플보드'라고도 불리며, 네 개의 홀이 있는 폭 41cm·길이 2m 크기의 '슬라'에 나무 원반인 '팩(Puck)' 30개를 밀어 넣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성별과 연령,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생활체육 종목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루는 어울림 경기 방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장애는 생각입니다. 체육은 생활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웃음을 나누며 우정과 화합을 다졌으며 생활체육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물론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 공동체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합니다"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에 나섰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27일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전자자동 혈압측정기 전달식을 갖고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은 125만원 상당의 전자자동 혈압측정기 1대와 탁자·의자 1세트를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평소 혈압을 손쉽게 확인하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이명옥 동장과 정원호 위원장, 전북은행 노조 간부, 오은석 지점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명옥 동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모두가 함께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금 모두가 함께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국립임실호국원서 묘역 가꾸기 봉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7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1사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장길환 본부장과 이원희 위원장, 이재문 지부장 등 임직원 18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묘역 정비 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은 담당 묘역을 찾아 태극기 정비와 비석 닦기, 잡초 제거,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며 참배객들에게 쾌적한 추모 환경을 제공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국립임실호국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사묘역 가꾸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6·25 참전 군 묘역 1,596기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장길환 본부장은 "국가에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이번 봉사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라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장수사회복지협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는 최근 장수군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전북지역다문화서비스팀 서양열 원장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 돌봄으로 함께 살아요'라는 제목하에 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병영까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 뒷일을 열심히 봉사로 돕겠다고 다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민식 이장, 천천면지사에 이웃돕기 성금

장수군 천천면 최민식 이장이 지난 28일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은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민식 이장은 지난 2023년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시 홍보축제, 농촌일손돕기 추진

김제시는 홍보축제 직원이 2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금구면 소재 농가에 방풍해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상추 재배를 위한 상토 작업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민원지적과, 용지면 포도밭서 일손 도와

김제시 민원지적과는 지난 28일 농번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용지면 봉리 소재 포도밭을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원지적과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포도순치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포도순치기는 열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정밀한 손작업이 필요해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건협 전북지부, 원광대서 청년 건강캠페인 전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청년층의 건강검진 참여 확대와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학 현장 캠페인에 나섰다. 건협 전북지부는 지난 28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원광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년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30대 청년층의 무료 국가건강검진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뇌파·맥파를 활용한 스트레스 검사가 진행돼 참가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건강검진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진영 본부장은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이 젊은 층의 건강관리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건강검진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협 전북지부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밀착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세대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사, 지조저수지 재해대비 훈련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8일 장수군 계남면 지조저수지에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 할수 있는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민관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은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의한 저수지 붕괴 등에게 대처 못한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자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과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장수군 안전·재난 관련 직원들과 함께하는 도상훈련, 장수소방서 119 급구조 협조 부상자 구조훈련, 협력업체 중장비 및 지사 응급복구 장비가 동원되는 응급복구훈련, 차량통제 및 하류부 주민대피 훈련 등을 가상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양희 지사장은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해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이영면, 독거노인 가구 안전손잡이 설치

남원시 이영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윤자)는 지난 22일, '1가구 1소통행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해 위험했던 주거 환경을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엔 발굴된 대상자들은 모두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 세대로, 평소 지팡이와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힘겹게 거동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장 점검 결과 2가구 모두 현관 출입구의 단차가 매우 높았으나 안전손잡이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높은 턱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려야 하는 등 낙상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영면은 신속히 내부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두 가구 모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현관 계단 및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